

내용 충실보다 영상미가 우선

‘원작 따로’ ‘영화 따로’ 어떻게 봐야 하나

“소설을 시나리오로...” 성공작의 70% 차지 문학적 표현과 영화적 표현 차이 인정해야

신 강 호

(연극영화부 강사 영화평론가)

지난달 17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담은 영화로 알려진 전극영화평론가와 공인 윤리위원회, 전국 6백여 개 극장에 ‘영화(태백산맥)’의 내용이 소설과 같을 경우 화자, 화자, 화자, 화자 등을 준비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을 각오로 극장 상영까지 투쟁을 벌였다는 경의문의 힘찬반대를 받았다. 이 단체들은 지난 4월 (태백산맥)의 원작자인 조정래를 고발하기도 했던 단체이다.

원작과 영화가 다르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더구나 영화를 보기도 전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흥행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이것은 일부 극우세력의 논리에 호응해 서의장을 획득해 주류 반으로의 편한 목표를 정한 양상이다.

작가도 생각못한 결말

원작과 영화의 차이를 최근의 한국영화 가운데 예를 들어 보자. (힐러리 키드의 생애)는 원작자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결말을 영화에서 보여 주었다. 안장호는 영미로 출간된 소설에 영화의 결말처럼 원작을 고쳐 쓸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의 결말도 원작과는 다르다. 엄숙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다른 권력자에게 존경하라는 뜻을 시사한다. (뽕), (남부군), (장군의 아들), (서해)는 원작소설과 얼마나 또 다른가?

영화 (태백산맥)도 원작과는 상당부분 다르다. 영화 (태백산맥)은 소설과는 달리 1948년 10월 20일 여순사건으로 밀고 가 보성군 군당에 결속되었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과 함께 산으로 다시 피박자하는 것으로 끝난다. 원래도 중도적인 민족주의자 김범우(안성기)는 소설의 끝부분에서 좌익으로 기울게 되지만 원작에서는 군명을 잃지 않았다. 빨치산 우두머리인 열산(김광진)은 신념에 따라 투쟁했지만 원작과 인민공화국이 들어선 후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밖에 그의 소설 속의 성격도 생각하고 영화를 본다면 놀랄 일이 적지

않다. 우익인 열산(김광진)은 원작에 대한 열등감과 미움으로 반경이 사방에 닿았다. 원작에서는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는 “사람사는 이가기가 바로 영화다”라고 일 말해 온 것처럼 “인중의 입장에서 현대사를 재조명, 체제나 이데올로기의 허위를 고발하고 인본주의를 그리려 했다”고 연출인장을 밝히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집안이 망가지고, 17살에 가출했다는 것, 한때는 반공영화를 전달하기도 했던 그가 “비난

을 개봉 영화관에서 1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83편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영화 가운데 작품성이나 흥행성에서 성공한 영화는 70% 정도가 원작소설을 가져온 작품들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한국영화는 특히 60~70년대 급격히 흥행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 ‘문예영화’들이 양산되었다. 그리고 ‘문예영화’는 원작이 지니는 문학적 평가에 힘입어 일반적인 오락영화와는 구분되는 ‘예술영화’라는

서 영화와 문학이 지닌 여러 상이한 특징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많은 이론가와 감독들이 그것을 중점해 보았다. 그러나 바로 영화와 문학의 서로 다른 예술적 특성 때문에 이 양자간에는 하나의 유대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고, 많은 문학가들은 영화라는 방앗간에 곡물을 제분해 왔다. 오늘날 영화예술을 논함에 있어 특히 소설문학을 논하지 않을 수 없고, 소설을 논함에 있어 영화와 연관하지 않을 수



영화 (힐러리 키드의 생애)는 원작과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 주었다. 작가 안장호씨가 원작을 옮긴 원작소설을 고쳐 쓸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의 결말도 원작과는 다르다. 엄숙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다른 권력자에게 존경하라는 뜻을 시사한다. (뽕), (남부군), (장군의 아들), (서해)는 원작소설과 얼마나 또 다른가?

나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류로 만들었던 시대, 그 치열했던 시대와 그것을 살아낸 사람들의 아픔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상황의 이렇러니 속에 사람들에게 조점을 둔 것이다.

6,70년대 문예영화 양산

한국 영화사를 돌아보면, 원작영화의 배후는 많다. 1919년 (의리적 구투)에서 1989년까지의 한국영화 70년 대표작 2백 개 가운데 40편, 70년에서 89년까지는 88편의 영화 가운데 63편이 원작을 가져온 영화이다. 또한 71~85년까지의 서

얼음만큼 두 예술분야는 각기 특수한 장로를 넘어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다. 짧은 영화사 속에 어느쪽이 우월한지 우회적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의 예술성이 소설의 세계를 그 폭넓은 종합예술 세계에 이른 소위화해까지 이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곧 소설문학의 독자적 영역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영화 예술보다 배우의 영역이 더 넓어진 것이다. 그리고 말한 바 있다. 내내연 영화 탄생 100주년이다. 영화가 탄생한 이래 그 배후에는 문학이 버리고 서있지만 영화사가 발전해 오면

원작이 호기심 일으켜 이러한 영화를 관객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느끼는 이유는 원작이 유명한 작품인 만큼 그 영화의 수준도 판단할 수 있겠고, 흥미와 공감을 느끼는 원작이 어떻게 영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현되었는가를 하는 궁금증 때문일 것이다.

강조할 따름이다.

영화란 영상으로 옮겨지기 이전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그 시나리오 구성은 소설문학의 구성과 유사하다.

소설의 구조가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영화배가 다루기에 알맞은 내용과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범위한 독자층을 갖고 있는 소설을 영화화할 경우 기존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흥행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중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가 많이 영화화되는 것이다.

원작이 호기심 일으켜

이러한 영화를 관객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느끼는 이유는 원작이 유명한 작품인 만큼 그 영화의 수준도 판단할 수 있겠고, 흥미와 공감을 느끼는 원작이 어떻게 영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현되었는가를 하는 궁금증 때문일 것이다.

원작영화의 영화예술로서 우수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원작의 충실도보다 더 중요한 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원작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창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원작의 내용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원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다.

가을철 대학생들 멋내는 법

남 운 자

(가정대교수 의상학)

가을철 대학생들의 옷 잘 입기

20대의 기발하고 도발적인 감각을, 50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무뎌 감각으로 표현하려고 하니 어떤지 쓸쓸한 말을 쓰는 기분이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우수수는 낙엽들은, 노년기를 불문하고 무엇을 잃어버린 듯 아쉽기

단정은 “기본” 개성은 “맘껏”

배이지-갈색 옷차림에 머물러도 장식

가을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

1. 길이 싸고 실용적인 것
2. 실용적이고 값싼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메이크업의 기교성도 고려를 잘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또한 시상상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다.
3. 디자인이 있고 활동하기 편한 것
4. 특별한 디자인 보다는 단순하면서도 품의 움직임

'94 KOREA RECRUITING EXPO

한국채용박람회

가자!

전국대학 졸업(예정)자를 초대합니다.

일시: 1994. 10. 4(화)~5(수) 4일 10:00~17:00, 5일 09:00~17:00

장소: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서양관(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

참가자 혜택:

- 1차서류전형과 면접전형(심사)이 한전에서 이루어집니다.
- 국내 100여개 최우량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의 입사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30대그룹 100대기업의 자세한 채용정보가 소개된 “해방기 취업가이드”를 증정합니다.

참가비: 없음

참가자구비서류: 입사희망카드(본사소장인) 작성 및 제출
성적증명서 5통, 자격증사본, 면허증사본
사진 50(5cm×6cm), 신분증

참가예정기업: 국내 30대 그룹사 및 주요 100대 기업

문의처: (주)리크루트 사업부
TEL 대표 (02)752-4111, 직통 (02)752-4042 (02)754-3063

입사희망카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본 카드는 작성자의 입사희망기업, 전공, 전공, 근무가능 지역별 DB화하여 채용사기별로 공개 및 복제사신 전향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특전: - '94 한국채용박람회' 신 입장(입장시간 전)

- '94 한국채용박람회' 입장권 무료 제공
- '94 하반기 취업가이드' 무료 제공
- 기타 입사희망기업 및 관련업종의 채용정보 및 취업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접수마감: 1994. 9. 27

발송처: 100-022 서울 중구 명동2가 50-1 리크루트빌딩 5층 (주)리크루트 기획정보실

* 입사희망카드를 각 대학 취업포드 또는 졸업준비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